

314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2) 이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 멘

84장 -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 (1)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치었네
- (2)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 (3)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 (후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기도 담당

11/19(화)	11/20(수)	11/21(목)	11/22(금)	11/23(토)	11/25(월)
방명용 안수집사	김기조 안수집사	김채영1 안수집사	이준배 안수집사	구연재 안수집사	신 승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성락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314장 다함께
기도	김민수2 안수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9~14 인도자
찬양	감사찬송 새벽찬양대
설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박성락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함께
찬송	84장 다함께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 1:9~14 >

-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11월 18일(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 새문안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빛 되신 예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등대의 빛을 비추어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담임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는 당회와 제직, 모든 새문안의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세상은 어둠에 물들어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의 풍조와 물질만능주의, 음란과 폭력의 문화로 젖어들고 있는 이 사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